

올해도 쌀값 폭락...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하라”

정부 목표 80kg 20만원 무너져
생산량·재배면적 감소에도 하락
최저가격 이하 하락시 차액 보전
민주, 개정안 추진... 국회 “부정적”

“정부의 쌀값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근심이 늘어만 갑니다. 지난해에는 쌀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했는데, 올해는 생산량도 적는데 쌀값이 떨어지니 너무 우울하네요.”

올해 정부가 약속했던 수확기 쌀값 20만원선(80kg 기준)이 무너지면서 쌀 재배 농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에서 쌀 농사를 짓는 김영욱씨는 쌀값 하락세 속에 농도(農道)를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년 간 쌀값이 5~6만원(20kg 기준)선에서 4만원대까지 내려왔고 있다. 커피값, 과자값은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해 분통이 터진다”며 “전남 농민들의 숙원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3일 통계청 산지쌀값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쌀 80kg당 가격은 19만9280원, 25일 19만8620원으로 계속 하향세를 기록하는 등 20만원선을 밀돌고 있다. 수확기 이후 산지쌀값은 지난 10월초 80kg

당 21만7552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달 19만8620원으로 내려앉으면서 한달새 1만8932원(8.7%)이 떨어졌다.

올해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모두 줄였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발표된 ‘2023 쌀 예상생산량’ 조사에서 올해쌀 368만4000톤으로 지난해 376만4000톤에 비해 2.1%(8만톤), 재배면적도 지난해 72만7054ha에서 70만8041ha로 2.6%(1만9013ha) 각각 감소했다. 전남도의 쌀 생산량은 74만3000톤에서 올해 72만8000톤으로 2%가 줄었고, 재배면적도 15만5000ha에서 15만ha로 3.1%가 축소됐다.

정치권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을 막을 근본적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담긴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참여를 요구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놓인 농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 등이 4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관련기사 3면
나건호 기자

심사소위에 즉각 임해 여야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전남 농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특히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주산지인 전남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타 지역의 공급 과잉 여파에 가격 하락이 반복돼 정부 차원의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

급한 실정이다.

김천중 전국양과생산자협회 전남지부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돼 쌀을 포함해 양파, 마늘, 배추, 무 등 다른 농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잉생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또다시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이 우려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최상목 경제부총리·박상우 국토... 여성 3명 발탁

尹, 중폭 개각 ‘2기 내각 본격화’
관료·여성 중용 ‘관리형’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4일 단행했다. 총선 출마 정치인 장관들이 빠지고 관료와 전문가, 여성들이 장관 후보자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예정이다. 관료와 전문

가를 기용해 정책을 강화하며 총선을 앞두고 관리형 내각에 초점을 두는 모양새다. 또한 여성 장관 후보자 3명을 발탁해 여성 인재 등용의 폭을 넓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가보훈부 후보자로 강정에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

축산식품부 후보자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후보자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후보자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련 “정통 경제관료로 대통령실 경제

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처며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경제 정책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청문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

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교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교수”라고 말했다.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라며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6·25 참전 무공훈장 수훈자인 강갑신씨다.

강 후보자는 “제게 보훈부 직책을 맡겨 주신 건 (독립운동가들)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빛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면에 계속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계인의 섬 청정제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일정

첫째날: 제주시도착 - 수목원테마파크 - 한라수목원 - 숙소

둘째날: 새별오름 or 색달해변 - 카멜리아힐(동백 올레) - 석부작 관광농원 - 송악산 올레길 - 노리매 공원 - The 馬 Park - 숙소

셋째날: 기념품&농산물직매장 - 교래자연휴양림 - 스카이워터쇼 - 승마체험 - 성읍민속마을 - 광치기해변 - 용두암 해녀촌 - 제주 출발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골드스텔라 (제주↔여수)
국내 건조된 대형여객선(2년차)

실버클라우드 (제주↔완도)
국내1호로 건조된 대형 카페리

산타모니카 (제주↔진도)
신조 쾌속 카페리

퀸메리 (제주↔목포)
크루즈형 명품 카페리

퀸메리 전경
목포출항 09:30 제주출항 17:00

실버클라우드 전경
완도출항 02:30/15:00 제주출항 07:20/19:30

골드스텔라 전경
여수출항 01:20 제주출항 16:00

산타모니카 전경
진도출항 08:00/13:30 제주출항 11:00/16:20

광주예약처 문화관광 김성곤(010-3635-5600) 062-524-5600 **목포예약처** 현대관광 서재웅(010-7375-1357) 061-245-0091

제주여행은 **송죽레저관광**과 함께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